



정강자(1942~2017)

정찬승의 <보디 페인팅>(1969) 모델로 나선 정강자(왼쪽), <투명풍선과 누드> 1968 / 1세대 여성 퍼포머. 1968년 한국 최초의 누드 퍼포먼스 <투명풍선과 누드>로 '해프닝 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동료 미술인과 일반 관객이 정강자 몸에 풍선을 붙이고 터트려 하의만 입은 작가를 드러냈다. 불순한 것으로 금기시된 나체를 대중 앞에 공개해 여성의 몸을 '리얼 보디'로 재정의했다. 가부장적 관습에의 정면 돌파! 여성 신체에 드리우는 관음적 시선, 사회적 억압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성능경(1944)

초지일판 퍼포먼스 외길을 걸어온 한국 아방가르드의 산증인. ST의 핵심 멤버로 활동을 시작해 행위의 '형식'을 탐구해 왔다. 신문과 잡지의 권위성, 지도와 사진의 지시성을 이벤트로 가시화했다. 실험미술의 시대가 저문 1980년대 이후에도 캐리어를 끌고 방방곡곡을 몸으로 누볐다. 성능경 예술의 또 다른 키워드는 '일상'이다. 돈 세기, 면도 크림 바르기, 오줌 누기 등 평범한 행위부터 가족사진 등을 활용한 설치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증언했다.



왼쪽 · 김순기 <일화> 1981_ 개념적 퍼포먼스를 선보여 온 재물 작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궁을 익혔다. 몸과 정신을 집중해 화살을 쏘는 국궁에서 동양 서화의 일필휘지 미학을 발견했다.
오른쪽 · 김주영 <쌀의 길> 2009_ '노마드 아티스트'. 사막, 초원, 바다 등 지구 곳곳을 다니며 생명의 존귀함을 기록한다. 파운드 오브제를 재료 삼아 회화, 설치, 퍼포먼스를 남긴다.



퍼포먼스의 표현 형식은 어떻게 발생해서 변천을 이룩했는지 살펴보자. 퍼포먼스라는 형식과 발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퍼포먼스는, 인간의 신체와 그 움직임을 주된 매체로 삼아 시간적인 경과와 함께 행해지는 표현이다. 그것은 미리 확정된 일련의 연쇄에서 이뤄지는 통상의 연극이나 무용, 연주와는 다르다. 면밀하게 계획되어도 작품의 진행과 함께 발생하는 우연적인 요소나 관객의 반응을 그때마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다. 신체적인 행위나 육체적, 물질적인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언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나의 의미로 환원할 수 없는 은유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퍼포먼스는 '라이브예술'이다

퍼포먼스의 구조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자. 퍼포먼스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저서는 『퍼포먼스아트』(1979)다. 이 책의 저자 로즈리 골드버그(RoseLee Goldberg)는 말한다. “퍼포먼스는 예술가들에 의한 라이브예술이다. 그 이상의 정확, 간명한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그 이상의 정의(필요조건)를 부여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예외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앤더슨의 ‘라이브성’이라는 정의는 오늘날 도전을 받고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면, 퍼포먼스를 더 열린

시각으로 더 진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C.S. 스티븐과 B. 헨터슨이 『Learning to Perform』(2010)에서 기술한 퍼포먼스의 특징을 요약해 보자. (1) 반체제적, 도발적, 비판습적, 공격적 내지 개입주의적 자세 (2) 예술의 상품화에 대한 적대 (3) 신체에 한정되지 않는 여러 시각적 이미지와 시, 자전적 소재, 말, 댄스, 건축,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의 이용 (4) 콜라주, 아상블라주, 동시성 원리에의 관심 (5) ‘만들어진’ 소재에 더하여 ‘발견된’ 소재를 이용하는 것 (6)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미지의 조화롭지 못한 병치 (7) ‘놀이’에 대한 이론적 관심 (8) 형식의 비완결성 혹은 불확정성. 여기에 부가한다면, 이러한 여러 특질이 시사하듯이, 이것을 종합하는 근본원리로서 ‘예술과 삶(일상)의 일치’가 아닐까.

1970년대에 들어서면, ‘퍼포먼스아트’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정착된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말, 신체나 사건에 직접 표현의 가능성을 찾았던 해프닝이나 이벤트의 시절을 거친다. 이때는 대부분 신체와 행위만을 매개로 하는 ‘보디 아트’ 작품이 다수를 이루었다. 김구림과 정강자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를 비인간적인 형태=사물로 포착하고, 그 비의미적 작동을 탐구하는가 하면, 연기자나 관객이 신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을 주제화하기도 한다. 신체적인 위험이나



<비닐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 중앙공보관 1967_ 신진 미술인 단체 무, 신진, 오리진이 연합해 <청년작가연립전>을 개최했다. 강국진은 이 전시를 계기로 <색 비닐의 향연>, <투명풍선과 누드>, <한강변의 타살> 등의 퍼포먼스를 이어 나갔다.

